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 챙기세요

광주국세청, 세제 혜택·전략소개
남성 경력 단절·고향사랑 기부
7천만원 이하 근로자 혜택 강화
헛갈리는 부양가족 꼼꼼히 따져야

이달 말까지 혼인 신고를 하거나 연금 계좌,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하면 막바지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광주지방국세청은 17일 이처령 ‘13월의 월급’과 추가 세금을 가를 수 있는 연말정산 세제 혜택 및 전략을 소개했다.

이번 연말정산에선 기본공제 대상인 8~20세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10만원씩 오른다.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이 된다.

육아를 위해 퇴직했다가 올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직한 경력단절 남성 근로자도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다.

19~34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감면(90%)받을 수 있는 기간과 경력단절 근로자로서 감면(70%)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중복되면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9세 미만이면 병원 장애인 증명서가 없어도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공제 혜택은 한층 더 강화된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낸 액수(연 3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올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육단련장 이용료는 문화체육사용분(30% 공제율)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는다.

내년 1월 15일 개통하는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는 교육비 등 공제·감면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자료 45종을 확인할 수 있다.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수영장·체육단련장에서 지난 7월 1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이용료 자료를 최초로 제공한다.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한도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10만원 이하까지는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금액은 15% 세액공제된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중 10만원 초과 금액은 일반지역 보다 세액공제율이 2배 높다. 대신 재난지역 선포 3개월 이내에 기부해야 한다.

오는 31일까지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도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중도 해지하면 안 된다.

고향사랑기부금도 연말까지 가능하다. 신혼부부도 연말까지 혼인신고를 마치면 각각 최대 50

만원씩 혼인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월세를 꼬박꼬박 내는 근로자는 미리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손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세무서 담당 직원의 검토를 거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공제 등은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부양가족 중 올해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빠져 한다. 이 경우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는 물론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도 받을 수 없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서도 제외된다. 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보장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도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이처럼 공제에서 제외해야 하는 부양가족 명단을 다음 달 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

국세청은 또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가족이나 공제대상이 아닌 삼촌·이모·조카 등은 부양가족으로 신고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주택자금공제도 복잡한 항목 중 하나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만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1주택 세대주도 적용될 수 있으나 담보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은 상환기간, 고정·변동금리, 거주식·비거주식 상환 방법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므로 대출할 때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미래내일 일경험 호남권(광주·전남·전북·제주) 운영기관과 대한상의 통합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여수 유탑 마리나호텔에서 열린 ‘미래내일 일경험 호남권 운영기관 성과공유 워크숍’을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상의 제공>

광주상의 미래내일 일경험 성과 공유 워크숍

“청년 직무역량 향상·취업 도움”

광주상공회의소(광주상의)는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미래내일 일경험 호남권 운영기관 성과공유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여수 유탑 마리나호텔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호남권(광주·전남·전북·제주) 운영기관과 대한상의의 통합지원센터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가 지원하고 광주상의가 주관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호남권 미래내일 일경험 공모전 시상, 우수사례 발표(참여 수·영상), 호

남권 지원센터·운영기관 성과 공유, 내년도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미래내일 일경험 호남권 지원센터는 지역 청년과 기업을 연계해 청년들에게 업무를 경험하게 하고 청년들의 지역 노동시장 진입을 돕고 있다.

김경호 광주상의 전무이사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의 효과가 청년들의 직무 역량 향상과 취업으로 이어지면서 호응이 높다”며 “운영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양질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정일선 제15대 광주은행장 선임

광주은행은 17일 “주주총회를 열고 단독 후보로 추천한 정일선(사진) 영업전략본부 부행장을 제 15대 광주은행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정 부행장은 1968년 강진 출신으로, 전남고를 거쳐 한림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1995년 광주은행에 입행했다.

광주은행에서는 여신지원팀장, 첨단2산단지점장, 포용금융센터장, 인사지원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으며, 현재 영업 조직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정 부행장은 주요 보직에서 활약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 부행장보, 2024년 부행장으로 승진



했다. 승진 2년만에 광주은행장 단독 후보에 추천되는 등 내부적으로 리더십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로써 정 부행장은 광주은행이 JB금융지주에 편입된 이래 송승욱 전 은행장(2017~2023년), 고병일 현 은행장(2023~2025년)에 이어 세 번째 광주은행 출신 은행장 계보를 이어간다. 임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전기차 충전 요금, 비회원이 최대 2배 비싸

소비자원 “요금 꼼꼼히 비교해야”

전기차 충전 요금이 회원·비회원에 따라 최대 두 배의 차이가 난다는 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내 주요 전기차 충전사업자 2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A업체는 완속 충전요금을 기준으로 회원가와 비회원이 각각 295원/kWh(킬로와트시), 590원/kWh로 차이가 났다.

또 타사 회원이 충전할 때 부과하는 로밍가도 최소 286.7원/kWh에서 최대 485원/kWh까지 69.2%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업자의 충전 요금 평균값은 회원가가 293.3원/kWh로 가장 저렴했고, 로밍가는 397.9원/kWh, 비회원은 446원/kWh로 가장 비쌌다.

현장 요금 표시가 미흡하고, 홈페이지에서도 요금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완속 충전기를 운영하는 19개 사업자 중 57.9%(11개)가 충전기에 요금을 표시하지 않았고, 급속 충전기를 운영하는 17개 사업자 중에서도 23.5%(4개)가 요금을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확인됐다.

온라인 홈페이지의 요금 표시 역시 20개 사업자 중 80%(16개)만이 메인 화면에서 요금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20%(4개)는 공시사항 게시글 등 이용자가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위치에 요금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자주 사용하는 충전기는 회원가로 이용하고, 그 외에는 가후에너지환경부 회원카드(EV이음 카드)를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올해 부실징후기업 221곳…대기업 크게 늘어

수시평가까지 합산시 437곳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금융권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서도 부실징후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채권은행 ‘2025년 정기 신용 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C·D등급)으로 221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작년 대비 9개가 줄었다.

등급별로는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C등급 기업이 104개로 4개 늘었고, 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D등급 기업은 117개로 13개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17개로 6개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금융권 신용공여 500억원 미만)은 204개로 15개 줄었다. 다만 중소기업은 수시평가에서 부실징후기업이 증가했다.

수시평가 결과까지 포함하면 올해 부실징후기업은 총 437개사로 46개사 늘었다.

금감원은 “부실징후기업의 증가는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일부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재무구조가 악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이 38개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16개), 도매·중개(15개), 기계·장비(12개), 전자부품(10개) 등이 뒤를 이었다.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은행권 신용공여 규모는 지난 9월 말 기준 2조2000억원으로 전체 은행권 신용공여의 0.1% 수준에 그쳐 국내 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4056.41 (+57.28)
↓ 코스닥	911.07 (-5.04)
↓ 금리(국고채 3년)	2.996 (-0.003)
↑ 환율(US D) 〈오후 5시 33분 기준〉	1478.41 (+1.35)

기아 오토랜드 광주 ‘폐기물 매립 제로’ 2년 연속 최고등급

UL 솔루션스 자원순환 관리 평가 폐기물 재활용 자원 생산 체계 실현

기아 오토랜드 광주(사진)가 ‘폐기물 매립 제로’ 검증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으며 친환경 경영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17일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 따르면 세계 응용 안전 과학 분야 기업 UL 솔루션스(UL Solutions)의 ‘폐기물 매립 제로’ 검증에서 2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을 획득했다.

폐기물 매립제로 검증은 폐기물 자원순환 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에 따라 플래티넘(99.5%~100%), 골드(95%~99.5% 미만), 실버(90%~95% 미만) 등 3개 등급으로 나뉜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공정상 발생하는 폐기



물을 재활용해 자원 효율적 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아 관계자는 “앞으로도 친환경 경영을 실천

하고 자원 순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직장인 10명 중 8명 “주 4.5일제 도입 찬성” 경험자 과반 “생산성 증가”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주 4.5일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17일 직장인 소셜 플랫폼 블라인드에 따르면 11월 27일~12월7일 모바일 앱에 접속한 한국 직장인 1만6920명을 대상으로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78%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고 응답한 직장인 비율은 14%에 불과했다. 특히 응답자의 경력이 길수록, 재직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찬성을 비중이 컸다.

찬성률이 높은 연차는 14년 이상(81%), 9년 이상 14년 미만(80%), 5년 이상 9년 미만(78%), 1년 이상 5년 미만(76%), 1년 미만(72%) 순이었다.

재직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명 미만 기업 재직자(86%)의 경우 1만명 이상 기업 재직자(77%)보다 찬성률이 높았다.

노동시간이 짧을수록 찬성률이 높은 경향도 드러났다. 주 52시간 이하 근무하는 그룹의 경우 찬성률이 80%를 넘어섰고, 52시간 초과 70시간 이하 근무하는 그룹은 75%, 7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그룹은 71%였다.

설문 참가자 중 주 4.5일제를 경험해 본 5398명을 대상으로 제도 도입 전과 비교해 생산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묻자 ‘생산성이 증가했다’(52%)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그다음으로 ‘변화가 없었다’(37%)와 ‘생산성이 저하됐다’(11%)가 뒤를 이었다.

일할 때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는 ‘조직 문화 문제’(23%)와 ‘비효율적 절차’(23%)가 공동 1위에 꼽혔다. /김해나 기자 khn@



한국전력거래소 등 연구 컨소시엄 관계자들이 지난 16일 현장 실증시험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전력거래소 제공>

전력거래소, 풍력발전기 합성관성 기능 실증시험

대부분의 기술 목표치 충족

한국전력거래소는 “지난 16일 전남테크노파크 발전소에서 유니스 풍력발전기를 활용한 합성관성 기능 현장 실증시험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험은 전력거래소, 광운대 산학협력단, 한국전기연구원(KERI), 유니스(주)가 구성한 연구 컨소시엄이 수행하고 있는 ‘풍력발전기 합성관성 제어기술 개발 관련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최근 전력계통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동기발전기 감소 및 관성 저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발전 출력 관련 자원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추세다. 전력거래소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풍력발전기 합성관성의 전력계통 안정성 지원에

필요한 제어기술 요건 검토 등을 목적으로 관계기관들과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험은 사고 직전 유효전력 대비 10% 이상 출력 증가, 상승시간 1초 이내, 유지시간 10초 이상 등 풍력발전기가 제공할 수 있는 특성을 실제 발전 환경에 도입하기에 앞서 평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험 결과 주요 기술들은 목표치를 대부분 충족했다. 다만 합성관성을 제공한 뒤 풍력터빈 회전력 회복과정에서 일시적인 출력저하 현상이 발생돼 추가 분석 및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재생에너지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다양한 합성관성 자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풍력 관성서비스 기반의 계통안정화 체계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